KOCCA Issue Paper

2009년 12월 4주

구분(장르)	제목	분야
심층보고	「Google Wave」 ▶ 올해 이메일서비스의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협업 공간을 타켓하여 런칭된 플랫폼 Google Wave를 검토해봄	인터넷
단신기사	▶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 박스오피스 현황"	영화
	▶ "애플 TV시장 진출 준비"	방송
	▶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에 재전송비 요구"	방송
	▶ "월트디즈니 신임 이사회 이사 지명"	산업전반
Marketing Report	「2009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황 II」	산업전반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미국사무소

Google Wave

올해 이메일서비스의 확장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협업 공간을 타켓하여
런칭된 플랫폼 Google Wave 를 검토해봄

□ Email 의 미래

○ Gmail 창업자이자 Friend Feed 창업자인 Paul Buchheit 는 "로봇이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는 이상 이메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11월 리얼타임 크런치업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한바 있음

○ Email 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툴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IM의 발전과 함께 2003년에는 커뮤니케이션 Category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약 49%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29%로 떨어짐

○ Online Publishers Association (OPA)에 따르면 Email 과 IM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이 발전함에 따라 2003년 이후 Community Category 에 대한 인터넷 사용량은 88% 이상 증가함

○ Generation Y, Z로 불리는 젊은 계층은 특히 email 사용에 회의적임

○ 2009년 8월 ZDNet은 Generation Y: '*Email is unfashionable and outdated*' 라는 기사를 헤드란인으로 작성 Facebook의 2억 7천만 유저들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의 국민수를 모두 합한

것과 동일하다고 분석함

- ○ 2008년 보스턴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학교 Email 계정을 제공하던 것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 Facebook을 필두로한 소셜 네트워크가 기존의 Community/ Contents Category의 영역을 벗어나 Communication Category 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 하지만 Generation Y (18세~25세) 가 email 마케팅에 보다 오픈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email 이 아직까지는 가장 선호되는 medium 으로 간주됨

□ 구글의 새로운 해결책 : Google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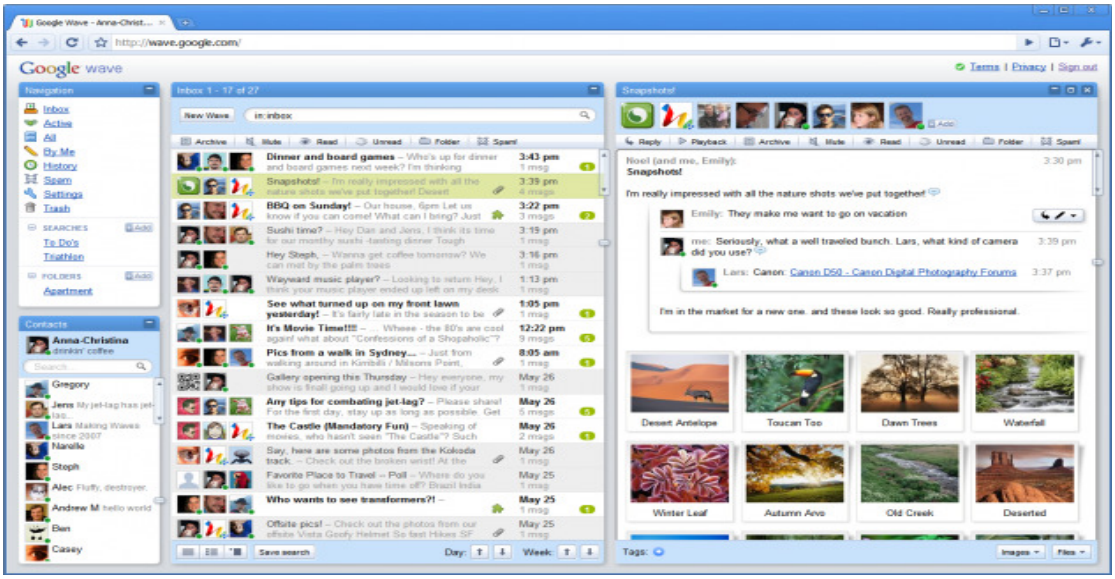
- ○ Google은 2004년 등장이후 5년만에 email service provider 3위로 올라선 Gmail 에서부터 최근에 론칭한 Google Voice까지 그동안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제품들을 개발해왔음
- ○ 반면 Orkurt 로 대표되는 Google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Facebook, Myspace등에 비해 Social Network 으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음
- ○ Google Sydney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Google Wave는 2009년 5월 Google I/O 키노트에서 발표됨
- ○ Google Wave 개발자 Lars Rasmussen에 따르면 Google Wave의 컨셉은 “Wave is what email would look like if it were invented today.” 임
- ○ 트위터의 창업자인 에반 윌리암스 또한, “아마 트위터를 만들지 않

았으면 웨이브 같은 것을 만들었들 것"이라고 말한바 있음

○ Google Wave는 기본적으로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징을 결합한 형태로서 댓글, 쓰레드, 실시간 메시징, 멀티미디어의 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계정 또한 id@googlewave.com 이란 형식을 띄고 있음

○ 현재 Gmail 베타 서비스 시작 때와 비슷하게 지난 9월 약 100,000 개의 초대장을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소수의 사용자들에게만 초대장을 배포하고 있음

□ Google Wave 의 이모저모



○ 구글 웨이브 초기화면은 Navigation, Contacts, 그 오른쪽 웨이브 리스트와 웨이브 컨텐츠를 보여주는 창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Navigation 에는 이메일과 유사하게 inbox, by me 등의 메뉴와 폴더, 그리고 서치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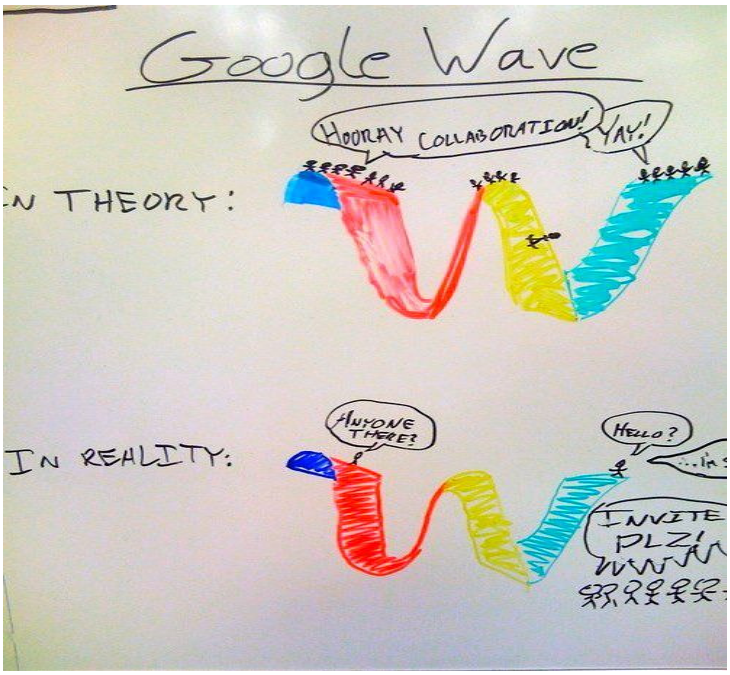
○ Contacts는 구글 주소록과 연동되며 흡사 메신저의 리스트 창을 보

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 웨이브 리스트에는 인박스 및 각 폴더 및 서치에 따른 웨이브의 리스트들을 보여주며 재미있는 기능은 트위터와 같이 Follow 기능이 있어 자기가 포함되지 않은 웨이브라 할지라도 Follow하게 되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자신의 인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 ○ 웨이브 작성창은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비슷하나, Gadget 이나 구글 서치 결과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기능이 제공됨
- ○ 구글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Collabor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웨이브라고 일컬어지는 문서가 작성되면 위키처럼 누구든지 내용을 수정, 삭제, 보완할 수 있으며 작성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점에서는 채팅 과 같은 기능도 수행됨
- ○ 기능상으로 구글 웨이브는 이메일, 메신저, 채팅, 위키, 커뮤니티, 트위터 등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매우 오픈되어 있으며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 구글은 웨이브를 강화하고자 최근 EtherPad라는 웹 협업 툴의 개발회사인 AppJet을 인수하여 웨이브 개발 팀에 합류 시킨바 있음

□ Google Wave 의 가능성과 한계

- ○ 현재까지 보여진 구글 웨이브의 모습은 단순히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Collaboration Tool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짐
- ○ 웨이브를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렵다,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 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짐
- ○ 지금까지 웨이브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제약이 없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부분에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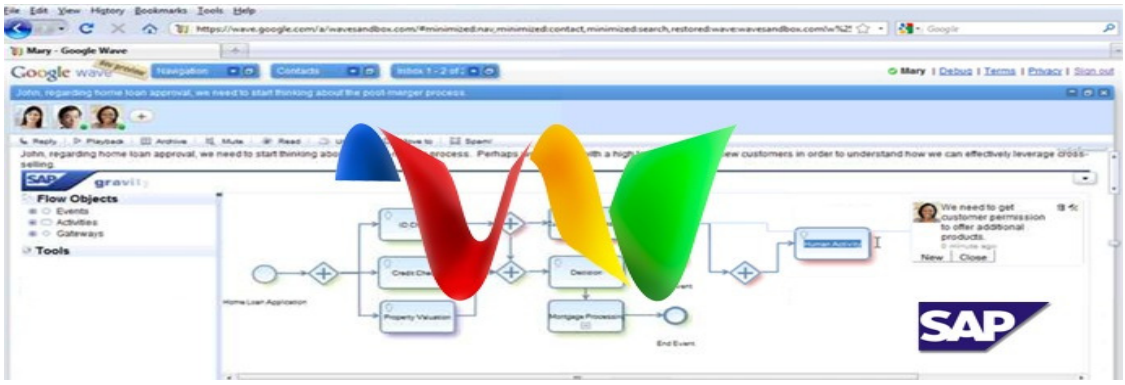
확한 웨이브의 비교 우위를 찾기가 어렵게 됨

○ 현재까지 구글 웨이브는 프리뷰 서비스인 관계로 많은 기능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소셜 네트웍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웍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활용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실시간 collaboration 으로서의 웨이브의 기능은 실제 팀단위로 하나의 장문의 페이퍼를 작성한다고 할때 여러사람이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서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굉장한 기능임

□ 시사점

○ 구글 웨이브가 현재까지는 많은 한계가 보이지만 전문이들은 실시간 collaboration 등의 웨이브가 가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변형되어 갈지가 관건임

○ Business Solution의 강자인 Sap이 Gravity라는 구글 웨이브에 기반한 Business Process 협업 툴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것 또한

Collaboration 툴로서의 구글 웨이브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